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성호경
+ 이달의 시작 성가 (41장)
+ 출석확인과 인사 나눔
+ 소공동체 기도문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마태 5,1-12)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뇝니다.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 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시다.

※'5분 신앙상식'을 공부하고, 공지사항,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 소공동체가
+ 영광송 및 성호경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함께하는 복음 묵상

마태 5,1-12

오늘 복음에서 참된 행복의 가장 첫 번째 말씀으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참된 가난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선 교회의 가르침을 종합적으로 말하면, ① 일반적인 가난은 극복해야 할 과제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가톨릭 교리서 2448-9항 참조)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궁핍은 불행한 것이며 이는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서 극복하고 풍요로워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누가 가난하다면 노력해서 가난을 극복하도록 해야 하고 이것은 주님 뜻에 맞는 것이며, 또한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또한 주님 뜻에 맞는 것입니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노력해서 우리가 모두 넉넉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극복해야할 대상으로서 일반적인 가난 외에 ②스스로 가난을 택하는 '복음적 가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는 넉넉하게 살 수 있지만,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게 살며 이웃과 공동체에 봉사하는 것으로 수도자나 성직자, 또는 특별하게 복음적 삶을 살아가며 이웃과 공동체에 봉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복음적 가난을 실천한 성인으로 성 프란치스코나 마더 데레사와 같은 분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말하는 가난이 '복음적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적 가난'의 본질적 의미는 마음으로 즉 '영신적으로 가난한 것'을 말하는데, 이 '마음의 가난'의 중요한 핵심은 하느님을 위하여 가로막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 끊어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소유한 부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사랑과 그분의 손길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나 가족들에 대한 염려, 직업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미래생활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부자'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끼아라 루빅의 해석).

이제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하고 있고, 곧 명절인 설도 다가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하느님의 관점에서 꼭 필요한 것만 취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일은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그 전날 밤부터 시작하여 기도를 하고, 아침기도를 하며,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기를 원하는 일부터 하기를 바라고, 그 순서대로 일을 하곤 합니다. 제가 필요로 하는 일은 항상 뒤로 밀리기 마련이고, 어떤 경우에는 며칠씩 밀려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보고 싶어 하는 드라마나 영화가 있을 때, 매번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일이 생길 때, 그것을 하다보면 거의 한 달 이상 그 드라마나 영화를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더 평화롭고, 더 충만하게 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의 것으로는 가난해졌지만, 하느님의 것으로 풍요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소공동체 여러분, 이번 주에는 나는 복음적 의미에서 어떻게 더 가난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더 하느님 뜻 안에서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 생각해보도록 합시다.

(수원교구 2월 소공동체지에서 발췌)

“요엘서의 간추린 소개” 5분 신앙상식

예언자 활동 시기
요엘이 활동한 시기는 기원전 5-4세기경으로 추정됩니다(기원전 400-350경).

선포 내용
요엘은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날이 임박했음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주 하느님만이 구원의 주관자이시라는 것과 약소민족에게 포악한 행동을 한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엘서에서 우리는 평등과 평화의 세계에 대한 희망이 선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평등과 평화의 세계는, 정의의 하느님께서 우리들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세계입니다. 요엘은 그런 세계를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민족이 되도록 진정으로 회개하고 정의와 사랑을 실천할 것을 촉구합니다.

요엘의 구성
1. 메뚜기 떼-기근과 참변(1,1-2,17)

2. 주님의 응답과 강복(2,18-27)

3. 주님의 날(3,1-4,21)

공지사항

-2월 12일(토)은 황선기 마티아 신부님의 사제서품 기념일입니다. 성인 신부님 되시도록 교우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월 16일에 수요 성경 공부를 개강합니다. 많이 수강하셔서 항상 말씀 안에 머무르며 묵상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됩시다.
교재 : 여정 (신약성경입문 마태오 복음)
시간 : 오전반 오전 10시/ 오후반 오후 7시 30분~9시 30분

다음 달 성경말씀

마태 17,1-9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 우리의 인생은 어디를 향하며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느님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부르심과 어떤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소공동체 기도문

○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 합니다.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엠마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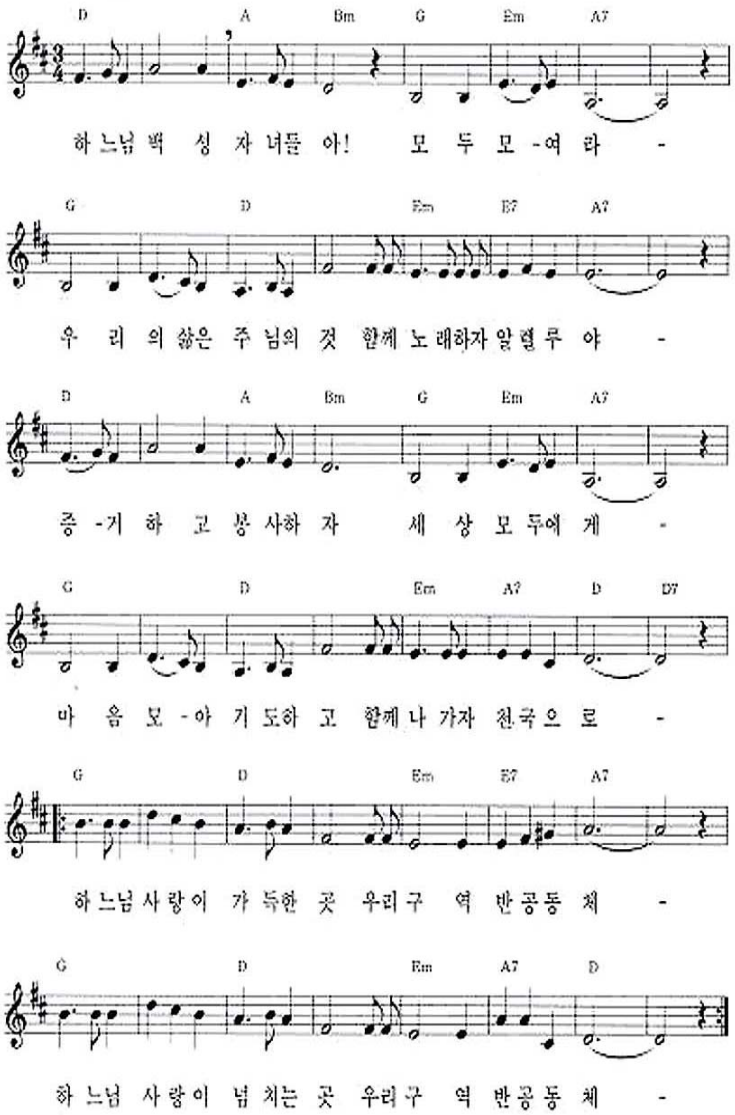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눔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뵙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소공동체가

작사 현 정 수
작곡 현 정 수

기도하며...